



2000년
1월 15일
제 17 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 시민 전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봉의산 정상 초교파 연합예배



춘천기독교연합회(장영찬 목사)는 1월11일 오전7시 봉의산 정상에 예배터를 만들고 초교파교회, 목사, 장로 등 200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앞에 역사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해맞이의 새로운 의미와 봉의산을 하나님의 소리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산으로 만든다는 뜻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모든 교회와 시민들이 복받기 위하여 복음으로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한 믿음의 예배였다.

이날 아침예배는 춘천기독교 1

백년 역사 이래 처음있는 일로써 참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이었다.

세계성서운동의 메카로 칭함을 받은 춘천의 교회로서는 늦은감이 있으나 이제부터 도시의 진지적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하는 예수의 뜻을 실행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봉의산정상예배는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고 한 군 목사(평화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조남진 장로(특별기도,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의 말씀선교, 성서신학교장단의 특송과 모든 회중들의 찬송이 이혼일 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각규 장로가 제의한 구호를 큰소리로 제창, 춘천의 새아침을 개했다.

“춘천은 거룩한 땅이다. 춘천은 축복된 땅이다. 성서화는 우리의 사명. 새천년 태양처럼 성서화의 불을 붙이자. 춘천을 예수의 도시로 변화시키자. 새천년 새해가 살롬의 해가 되게 하자. 새천년 새해를 예수님의 해가 되게 하자. 미션 우상 기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춘천에서 떠나라” 성도들은 황영찬 목사(연합회장)님이 장성옛 준비해 온 커피로 추위를 녹이고 하산했다.

철원교회유적지 성지조성에 박수를 보낸다

-국·도·군비 2억여원 주차장, 주변 보호책 설치 순제지 유지-



철원군은 안보관광지역의 복원사업으로 6.25전쟁시 파괴된 철원읍 관천리 99번지에 위치한 철원감리교회를 기독교 성지로 복원하여 학술당한 양민들과 기독교 순교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2월~9월까지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주차장 1,650㎡와 주변 보호책 1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교회 유적지를 성지로 조성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앞으로 철원 안보관광권에 포함되어 전국 성지 순례자와 연결하게 되며 국내외 기독교인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산교목장이 될 것이다.

철원감리교회는 1936년에 건립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3층에 성도 500여명의 큰교회였다. 6.25당시 북괴군은 교회를 막사로 사용하면서 지하실에서 기독교인과 양민을 학살했다.

한가정을 살린 살신성인의 기독교인

-새해 첫 신장기증자 고금란 성도-

지난해 4월 평화감리교회(한 군 목사) 창립21주년을 맞아 300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시간, 초신자인 고금란 성도는 남편 강성경씨와 함께 생전에 신장 1개씩을 기증하기로 약속했

다. 새해를 이어가면서 어렵게 새해를 돌보며 살아왔으나 금란 고금란 성도의 신장기증으로 생명을 되찾게 되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실현은 죽어 가는 이웃을 살리는 기적을 만든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 증가할 때 우리사회는 밝아질 것이다.



장기기증 문의전화: 국민인명 1588-1589 (24시간상담) 강원지역본부(주정전 사무국) 0371-731-0855

생존시 가능: 혈액, 골수, 신장 사후에만 가능: 각막, 뼈, 신장, 뇌사시에만 가능: 심장, 폐, 췌장, 피부, 각막, 신장장

한기총 '한국교회일치' 적극 나서

-21세기 단일 연합기관 출범 '관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지덕목사)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한국교회 일치운동'을 강하게 주창하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원목사)와의 대화 및 연대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 단일 연합기관 출범 성사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주요사업으로 기독교교도소설립, 탈북자난민지원보장운동, 한국교회일치운동 강화등을 선정, 이중 한국교회일치운동강화를 위해 12월14일 실행위원회에서 한국교회 일치운동기구 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한기총의 이같은 움직임은 교회협이 지난 11월22일 총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운동 특별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이후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양대교회가 비로소 '한국교회 일치'에 대한 범기독교적 소망을 놓고 공통된 움직임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기총은 20세기 한국교회 분열과 성장의 시기였던 21세기는 화합과 나눔의 시대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복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연구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이기적 기득권을 극복하고 대통합의 길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

이다라고 강조했다. 교회협에 비해 연합과 일치운동에 상당히 보수적 입장이었던 한기총이 기독교 남북 및 복음의 다양성 인정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본격적인 교회 일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한기총과 교회협 양대 대립의 구도 청산에 대한 가장 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기총이 대표하는 보수주의권은 '복음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길 매우 꺼려왔으며 자기 교단의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교파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5월 한기총 지덕목사의 대화요청을 거부하는 등 최근까지 한기총과 연대 및 통합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11월 제48차 총회에서 '연합운동 특별추진위원회' 구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전병국 목사(강남교회) 등을 중심으로 '단일 연합기구 조직론' 및 '통합론'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0년 시작과 더불어 한기총이 교회협을 향해 적극적인 대화 및 연대 제의를 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회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999년 연합송년예배
춘천성시화운본부는 12월30일 오후5시30분 월드비전 대강당에서 초교파 연합 송년예배와 만찬으로 99년을 마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격려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인도하심이 교화와 가정 일터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춘천성시본부·성시신문-

전방부대 쓰러져간 교회개축의 소원을 듣고

지난해 12월7일 삼천봉 십자당 성탄트리 점등예배에 참석자 38명대를 방문한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 및 평신도 일행은 예배장소에 출발한 잠시 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대장 박종선 대령은 9월1일 부임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의 초년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자어 안타까운 소원이 있다며 겸손하게 입을 열었다. 연대장에 15명 크기의 교회가 있는데 72년도에 지은 부로크 스타일 지붕으로 곧 쓰러질 위기에 있고 외형도 드러누르다 나올 것 같아 벽면만 페인팅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찬양단, 연예인, 기관단체들의 위원이 있을 경우에도 수용할 능력이 없어 불편하다는 것이다.

38명대에 숙원사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특별한장이라고 협력을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부대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한 주민이 없는 지역으로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안고 있으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어 쓰러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연락처: 화천군 심서면 마천리 적근동이피로 404호 (209-810)
김용재 군목 0363)442-0990
춘천성시화운본부(성시신문사) ☎ 0361-256-1260

배우자만남 캠프 및 결혼예비학교 오픈

-85년 이혼율 5.6% 99년 33%로 가위위기-

'기독교청년 배우자 만남캠프 및 결혼예비학교'가 2월3일(목) 오후4시~5일(토) 오후1시까지 가평송동캠프장에서 개최된다.

온전한 기독교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인간관계훈련, 나에게 맞는 배우자상, 부부정신건강, 부부커뮤니케이션, 그리스도인의가정관, 부부문제해방과 해결등 기독교 평생 가정생활 프로그램 운영한다.

전국순회선교단 최선호목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강의와 주제토론 및 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기독교 가정의 초석을 다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춘천, 강원지역 기독교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기간 2000년2월3일 오후4시~2월5일 오전1시
- ▶장소 가평 송동캠프장
- ▶대상 결혼할 기독교청년으로 교회출석이 확실한 세례교인 또는 기독교교인, 선교단체, 직장선교회에 소속한 자♥남: 군필(면제)한 직장남성 ♥여: 대학재학생 및 직장여성
- ▶캠프정원-남여10~15명 이내 (그 외 분들은 결혼예비학교에 자동입학)
- ▶서류신청및 접수 1월31일~20일까지 ☎(0361)256-1260/018-328-2750
- ▶참가비 5만원 (조용은행구와:711-04-123620 예금주:조충환목사)
- ▶주최 성서화운동본부
- ▶협찬 및 후원-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각 방송사, 신문사

춘천, 강원도전지역, 인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등 기독교청년 남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부흥2000

MISSION CONCERT

27(목/백한교) 28(금/미전도종목)
장시 Guest 장시 Guest

무료입장

2000.1.27(목)~28(금) 오후 6시 30분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정문에 위치)

장소: 춘천 강원대 백령문화관(정문에 위치)
찬양: 마라나타 찬양선교단 & 교회연합 CHORUS
주관: 마라나타 찬양센터 Tel 244-5423, 019-326-5938
주최: 춘천성시화운본부 후원: 기독교춘천방송 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베드로선교센터, 예수사람운동

사설

교회연합으로 기독교를 살리자

21세기를 출발한 한국교회의 제1과제는 연합으로 하라는데 있다.

연합이란 막힌 벽을 열고 서로 존중하며 분열된 역량을 한데 모아 기독교의 힘인 복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우리 사회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주먹의 높은 담이 하나씩 허리고 있다.

전통적인 관념의 위협부담을 감수하며 주먹의 담장을 열고 오픈한다는 것은 그 주먹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 열리고 있으며 담벽을 받고 문을 잠그는 것보다는 활짝 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의 소산일 것이다.

한국기독교교의 연합은 20세기경 21세기로 이어지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기독교의 생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실질적인 연합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다.

우리 기독교의 연합운동은 일관적으로 상충하며 극한되고 하층의 개교회와 성도들에게 불복,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춘천에서 일고 있는 '성서회합운동'은 1972년도

에 시작된 교파를 초월한 평신도 연합 운동체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해체되지 않고 28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 즉 하루 여섯들의 연합운동이란 장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장선교회와 지속되는 것 역시 평신도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좀 더 건전한 연합을 위해 지난해 '직목'을 조직하여 목회자들이 지도를 받고 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바람직스러운 연합이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을 위해 결집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21세기 연합의 첫 단추를 금년부터 새로 끼워야하며 목회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초교파적인 연합에 두어야 한다.

교회연합의 연합은 강조하면서 초교파의 연합에는 방관하거나 배타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임에 칭찬받지 못할 일이다.

연합으로 결집력을 가질때 교회와 사회를 갱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되고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교회 유적지를 성지로 바꾸는 일

이방나와 고래스왕이 예루살렘성전 건축에 앞장 선 것처럼 칠원군에서는 안보관관내 교회 유적지를 전국 성지와 연계, 순례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25전쟁사 파파된 교회 유적지를 기독교 성지로 복원, 학술감당 양민과 순교자를 추모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 순교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신앙욕구를 제공하려는 사업이 급근 1990에 완공, 오픈된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1백년이 경과했지만 유적이거나 문화재가 별로 없는데 칠원교회 유적지를 지방행정관청이 성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있으며 우리 교회는 찬사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또 칠원교회 유적지를 문화재를 발굴하고 고귀하기만 후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관심을 모아야 한다.

칠원교회의 유적지 복원사업을 보면서 기독교가 먼저 관심을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국기독교는 역사적인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

고 유적지, 문화재들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춘천기독교교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매년 1회 '기독교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개발되고 장래에 있는 문화를 집대성하고 개발 육성해 나가므로 세계적인 문화재를 만들어 국내외 순례자와 관광객을 호반의다. 성서문화도시 춘천으로 모여들게 할 계획이다. 동체회의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춘천시 중앙에 높이 3천은 봉의산을 기도의 산으로 만들어 매월 기도하고 있으며 금년 1월1일 교파를 초월한 목사, 장로, 성도 2백여명이 연합하여 춘천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산장에서 기도할 양에 예배를 드린다.

현재 기독교문화 운동은 성서화(聖書化)운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기는 하나 미흡한 상태이며 보다 성서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표현적인 행사를 병행한 두 행동과제로 가능성 있는 기독교 문화가 창달되어야 하며 전통을 만들어 보전해야 한다.

동정



■형성목사
기독교연합회(춘천점)는 12월30일 오후 5시30분 월드비전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문화포럼 순례예배에서 '새천년해맞이' 예배에 참석, 말씀을 선포하였고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에서 선포했다.



■김주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는 1월6일 저녁 7시 성서회합(7도)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박영목 목사
석사강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축도했다.



■한 군 목사
평화강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6일 영월지역 연합부흥회에 참석, 선포했다.



■박상호 목사
춘천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7시 봉의산성서 새천년 해맞이 연합예배에 참석, 선포했다.



■김광국 목사
성경장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월드비전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대표기도했다.



■윤준철 목사
춘천중앙성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춘천시당에서 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김동희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예배에 참석, 축도했다.



■임인영 목사
춘천동부장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를 인도했으며 1월4일 오후 3시 로암 성교회 겨울교회 개회예배에 참석, 선포했다.



■이원호 목사
춘천소양성교회 담임목사는 1월20일 수동기 도원사지 지역순례회를, 24-27일까지 고을 순례하며 30일 오전 11시 청암46주년 기념예배를 드림 계획이다.



■김영호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월18일부터 27일까지 춘천성서문화포럼 순례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권오서 목사
중앙강교회 담임목사는 1월18일부터 27일까지 춘천성서문화포럼 순례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유인영 목사
남천강교회 담임목사는 1월11일~4월10일까지 매일 새벽 '성경통독 100일'을 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조영호 목사
춘천성서교회 담임목사는 1월13일 오후 7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조준환 목사
춘천성서본부 사무총장은 12월27일 오후 5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김준원 목사
로암성서교회는 춘천시 담임목사는 1월13일 오후 7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박인근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2월23일 저녁 7시, 성서회합(7도)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정상문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김영호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박영목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박영목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박영목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박영목 목사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는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춘천성서회합에 참석, 말씀을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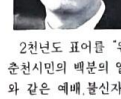
새얼굴

춘천남부제일강교회 백낙영 목사



백낙영 목사는 지난 12월7일 영월대학교에서 춘천남부제일강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백목사는 영월공고, 목원대 신학과를 거쳐 미국 임버누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3년 6월 5일 청성 개신교회에서 첫목회를 시작으로 인천 성덕교회, 부곡사, 서울광림교회, 영월대학교 부속사 97년 담임목사로 재직한 능력과 덕을 겸비한 목사입니다.



2천년도 표어를 '와대만 비전 속에 진전하는 교회'로 정할만큼 앞으로 10년간 춘천시민의 백분의 일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는 목회자의 포부를 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 불신자 전도, 세계적인 프로그램, 사서사랑, 지역사회봉사 5대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다음사랑을 주력하고 있다.

첫째 바나나 교육과 1인1책운동과 청지기 생활교육(일꾼교육) 둘째 행복가정 만들기(남녀성경학교, 부부성경학교운영) 셋째 체계적인 성경공부 지도와 양성(새신자 정착을 높이기) 넷째 행정(행정) 18년도목회 운영(새신자 초청주) 다섯째 지역사회 사랑실현운동(독거노인, 고아 등 소외계층)

교계단신

◆전국 유월절 축복대성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은혜와 능력받기 위한 '전국 유월절 축복대성회'가 1월10일(월)~14일(금)까지 석사강교회당에서 정영문 목사(부산시온교회)를 강사로 개최되었다.

◆춘천북지방 구역자 회의
춘천북지방(안 군 갈리사)은 1월7일 우두강교회당에서 북지방구역자회의를 열었다.

◆전국장로교 주일학교연합회 성경교사 및 찬양경연대회
전국장로교(합동)주일학교 연합회는 1월13일-14일 서울 충현강교회에서 성경교사와 찬양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14일 오후 1시 유, 초등부 학생들과 청교대를 관람했다. 춘천제일강교회 어린이 50여명은 김용호 교육부장의 인솔하에 연합대회에 참가했다.

◆교정협의회 신년하례회
교정협의회(회장 정성문목사)는 1월6일 오전 11시 동원교회당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춘천동지방 "2000년 축복대성회"
1월2일~5일까지 신성교회에서 이종문 목사를 강사로 초청, 축복대성회를 개최했다.

◆춘천 서남북지방 연합사경회
1월18일(화)~20일(목) 오전 10시 석사강교회당에서 춘천 서, 남, 북지방이 연합으로 사경회를 가질 예정이다.

◆구세군 자선발매 모금 조과당성
춘천지회 구세군영문(춘천, 북춘천, 소양영문)연합회는 12월14일~24일까지 총 14,338,030원을 모금, 목표액을 초과달성 했으며 결의아동 및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모금 되었다.

◆인도단기신교전 파송
평화강교회에서 1월16일 저녁 7시 인도단기 신교전(김정삼 목사) 파송예배를 드렸으며 19일 출국할 예정이다.

◆춘천제일강교회(사관사 목사)는 1월23일 오전 11시 교사인명식 및 헌신예배를 드리고 30일 오전 11시 이슬비전도대 임명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성광장교회(김광국 목사)는 매주 금요일 밤 9시30분 초등부생에서 철야기도회를 가지며 17.8일간 기간인 세미나와 31일 당회와 있을 예정이다.

◆광장강교회(원기배 목사)는 1월20일-22일 아동, 초등부 성경통독 겨울순례회를 열 예정이고 24일부터 26일까지 전후회 목사(불꽃교회)를 강사로 초청 부흥회를 가질 예정이다.

◆춘천제일강교회(박창호 목사)는 1월22일 오전 11시 신년축하 총동원예배를 드리고 3월-5월 지역 봉사자세미나 및 축복대성회가 있으며 중국단독신교사로 파송된 방인영(김진중)전도사 부부가 18일 출국했다.

◆춘천우두강교회(김영민 목사)는 1월22일 전교인 신년신앙생활 결산서를 제출하고 헌신예배를 드렸으며 3월-5월 지역자 30분 임원, 교사, 성가대 연합세미나를 가지고 7일 분교교회당에서 북지방구역자회의가 있었다.

2000년 춘천기독교연합회 사업계획

2000년 성서운동본부 사업계획

2000년도 기독교계 기관단체 사업계획

한국통신 춘천신화교회(희광동 회장)

사업명	시기	내용
• 새천년 해맞이 산악기도회	1월1일 오전7시 춘천 부곡사	초교과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연합으로 산악기도회
• 신년교례회	1월3일 오전11시 월드비전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장로, 신교단제일회, 교계지도층의 신년인사와 예배, 찬양
• 3월 기념예배	3월1일 오후 강소 미정	모든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연합예배
• 부활절 기념예배	4월5일 오전5시 시청광장	모든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연합으로 시청광장에서 감사예배
• 연합부흥성회	6월 중	모든 교회 목회자, 평신도 참여 초교과교회를 위한 신앙부흥회
• 8-15 광복절예배	8월15일 오후 강소 미정	모든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연합예배
• 기독교문화축제	10월3일 오전10시 시청광장 종합운동장	모든 교회, 선교회 기독교인 참여시가지 거점행렬, 체육대회, 집회 등
• 성탄트리등장예배	12월 초 전방 군부대	전방부대 성탄트리 점등과 교회기 마련한 위문품 전달
• 중앙로터리 성탄트리점등예배	12월 초 오후5시 기암동 일대	기독교연합회 임원, 장로, 목회자, 직장선교회원, 모든 교회 성도들 참여

사업명	시기	내용
• 성서회합기도회	대주 목요일 오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성서신년대행	대행 1회 월드비전 3층 강당	모든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연합으로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성서문화행사	대주 토요일 춘천중앙교회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문화행사
• 춘천동부장교회 담임목사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 담임목사	1월3일 오전 11시 월드비전 3층 대강당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 춘천소양성교회 담임목사	1월20일 수동기 도원사지 지역순례회	24-27일까지 고을 순례하며 30일 오전 11시 청암46주년 기념예배를 드림 계획이다.

사업명	시기	내용
• 춘천기독교연합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 춘천제일강교회(이영규 회장)	1월1일 오전7시 월드비전 3층 강당	초교과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의 기도회와 목회자 집회로, 제1회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신년교례회

사업명	시기	내용
① 매월예배 및 성경공부(월례회 12, 총회 1)		
② 불우이웃돕기		
③ 소년소녀가장 대상 150,000원 후원		
④ 초등학생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장학금 지원		
⑤ 부활절		
⑥ 전직인과 파송소, 소양사에 달걀선물		
⑦ 추수감사예배 (11월)		
⑧ 전국연합예배에 참가 (3-4월)		
⑨ 전반기예배 및 행사 참가 (정오예배, 찬양대, 자연보호등)		
⑩ 후반기예배 (김차경 회장)		
⑪ 매월 장제예배 및 성경공부 (월례회 12, 총회 1)		
⑫ 장제 기념예배 (5월)		
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후원금 및 쌀 20kg씩 전달		
⑭ 분기별 헌신예배, 체육대회, 등반대회		
⑮ 월드비전 선교회 (김남철 회장)		
⑯ 매월예배 및 성경공부 (월례회 12, 총회 1)		
⑰ 전반기예배 및 행사 참가 (정오예배, 찬양대, 자연보호등)		
⑱ 후반기예배 (김영민 회장)		
⑲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온누리교회에서 부부동반으로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한다. (회관 23명)		
⑳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지리산에 있는 "나눔의 동산"을 방문, 정신치여와 노인을 돕는다.		

충청서시현우도보보

해외선교의 금자탑 쌓아올린 평화교회

- 8개교회 설립, 현지인목사 15명 배출, 신학교 개설운영 -

말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해외 복음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평화감리교회는 1978년에 개척하여 굴지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90년도부터 한 국목사는 해외선교에 남다른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인도. 복음화를 위한 사업으로 결집하고 온 교인이 목사를 중심으로 인도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 불침을 하여 후원하고 있다. 8개교회를 건축하고 1개신학교를 세워 전도자를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타지나이를 비롯하여 10여개 국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으며 1990년 선교사 1가정을 파송하였고 그후 2가정을 파송, 현재 3가정의 선교사를 지원하여 미진도 종족이 많은 복도인 복음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평화교회 이름을 딴 '살롬인도선교회, 살롬교회협의회'가 조직되

어 있으며 살롬신학교를 세워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현지인 목회자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명의 목사를 배출하였다.

한 국목사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매년 11월 인도 현지로 방문하여 부흥집회를 통해 성령의 불을 붙이고 개척한 지교회와 신학교 교육운영상황을 살피고 인도의 복음화 전략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는 등 효과적인 선교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지난 11월1일부터 12일까지 6개 지교회를 순방하고 집회를 인도하였으며 충만한 은혜속에 감동받은 현지인들은 은혜받은 것을 기념하여 2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또한 현지인 목사는 자기 소유명과 건물을 헌납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에는 선교의 꿈을 가진 평화교회 청년들을 중심



살롬신학교 현판식



한 국목사 현지 목사인수식 장면 (살롬신학교)

으로 한 단기선교팀(30명)을 2개월간 파송하여 현지선교에 대한 체험과 도전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평화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국 목사를 중심으로 선교인이 믿음으로 결집하여 어렵지 않고 헌신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사역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인도지역선교를 위한 조직과 내용을 보면 살롬인도 선교회(S.I.M)는 파송된 3명의 선교사 부부와 현지인 21명으로 구성되고 한 국목사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복

인도 교회개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살롬교회협의회(S.C.A)는 현지인 목회자 21명(8교회)으로 조직되고 2005년까지 25개교회로 확장할 계획이며 한 국 목사를 협의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살롬인도 신학교(S.T.C)는 선교사의 전도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현지사정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98년도에 신학교를 설립, 현지인을 목회자로 양육하고 있다. 초년도에 10명의 신학생수가 50명으로 늘어나고 대지 200평에 자기 건물을 갖게 되었다. 신학교 학장은 한 국 목사가 맡고 있다.

새해는 용서 화해 사랑으로 평화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이라 불리우는 또다른 한 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천년을 맞이하여 원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찬 출발을 하기를 줄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주님의 은혜로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춘천성서와 운동

의 밝은 미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춘천성서신문"은 지난 1년동안 놀란만큼 발전하여 급급한 성령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었고 복음의 진도지로서 그 사명을 다하였음에 대해 조남진 장로님, 조충만 목사님 그리고 이학규 장로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춘천지역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2천년을 새천년이라 여겨가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서적인 의미를 찾아서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후 2000년은 50년마다 오는 회년의 40번째 회년으로서 은혜와 사랑과 인식의 해임을 깊이 각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화해와 탈냉전시대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세계도처에서 종교문제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땅에서는 한민족이 한민족으로 정체성에 대한 냉정한 냉정도를 허용하지 못하였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과 지구환경의 파괴, 폐역하고 간악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기독교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변에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주님의 용서로서 당면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성경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회를 맞이하여 진정한 주님안에서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온 세계가 정의로운 평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야겠습니다.

- 독자들에게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살롬!
2000년 새아침 이범찬 집사

새천년 대구성시화대회 개최

대구성시화운동본부(조동제 본부장)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후 7시30분 순복음대교회 김준곤 목사(C.C.C. 총재)를 주강사로 양인평 장로(부산고등법원장), 천용태 장로(백두명인 변호사)를 강사로 초

청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성시화운동" "대구강역시를 거룩한 도시로"란 주제로 새천년 대구성시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053)755-6003 / 762-6175
대구성시본부



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춘천기독교연합회는 1월3일 오전11시 월드비전 대강당에서 새천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강원도청 송년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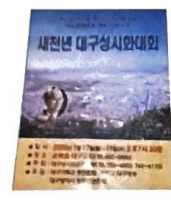
강원도청선교회(김봉국 회장)는 12월27일 오후5시30분 신관 대회의실에서 조충만 목사의 설교로 송년예배를 드리고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춘천성서본부와 월드비전 직원들은 12월4일 오후1시30분 임영민 안수집사(춘천침례교회)의 초대로 기원요리를 시작하면서 단합하는 기회를 가졌다.

성서신문 제작비를 후원해 주십시오!!

무연좌차 (예금주 조남진)
통 계 203-02-280238
조용은행 716-01-001389
우 제 국 200022-023352



성탄절 축하공연

대광장로교회(장영희 목사)는 99년12월 성탄절을 맞아 학생부의 성극공연으로 아기에 수탄생을 축하했다. (춘천시 서면 담원1리 농촌교회 성탄절 행사장면)



로삼청소년 겨울학교

로삼청소년 겨울학교가 1월4일 오후2시 담원2리 선교회에서 목사 장로와 20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예배를 드리고 2월3일까지 합숙교육에 들어갔다.



로삼청소년 겨울학교가 1월4일 오후2시 담원2리 선교회에서 목사 장로와 20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예배를 드리고 2월3일까지 합숙교육에 들어갔다.



월드비전 사무예배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순환 관장)은 1월4일 오전10시30분 사무예배를 갖고 새해 첫 근무에 들어갔다.

동부연회 基督實業人敎會 정기총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실업인선교회 제3차 정기총회가 1월9일 오후8시 춘천석사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전인회장 이덕수(영월중앙교회)장로가 임기를 마친에 따라 새인원을 선출하고 새천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부연회실업인회는 도내 감리교 23개 지방 장로들로서 사업 및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회원이며 현재 42명의 부부회원이 있다.

회 장 : 정계형(鄭桂亨) 장로 (횡성감리교회)
부회장 : 장석찬(張錫讚) 장로 (원주제일교회)
총 무 : 김기태(金基泰) 장로 (춘천중앙교회)
회 계 : 김병기(吉炳基) 장로 (원주서원교회)
감 사 : 김춘송(金春送) 장로 (원주태강교회)

기독교대한 감리회 서춘천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 창 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 사공 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로사랑교회 담임목사 / 김 준 언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 석 교 회 담임목사 / 박 성 구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사암중앙교회 담임목사 / 최 상 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 광 교 회 담임목사 / 정 하 영	기독교 한국침례회 반 석 교 회 담임목사 / 허 창	구세군복춘천영문 담임목사 / 홍 봉 식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중앙교회 담임목사 / 박 성 군	기 독 교 한국침례회 열 린 교 회 담임목사 / 신 성 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 / 명 위 식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사랑교회 담임목사 / 정 재 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 주 교 회 담임목사 / 박 명 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양문 순복음 교회 담임전도사 / 김 길 흥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 신 교 회 담임목사 / 이 은 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호반 교회 담임목사 / 송 난 의